

전국 시도 지부장 연석회의 개최

- 각 지부마다 치과계 특징적 현안문제 집중 연구키로
- 치과의료 보조인력 대책마련
- 부정의료행위 및 부정기공물 제작척결책 강구
- 종합학술대회 매년 개최
- 자동차 보험수가 현실화 문제
- 치협내에 의료보험심사 상설기구 설치 등 36개 안건 심의



〈각 시도 지부장 및 치협임원 연석회의에서 당면한 현안안건이 깊이있게 논의되었다〉

90년도 제2회 지부장회의가 지난 7일 오후 2시 63빌딩에서 개최되어 치협집행부 및 각시도 지부에서 상정한 치과계 현안문제 36개안건을 토의했다.

치협임원 및 의장단, 감사단, 각 시도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지부장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치과계에 있어 고질적인 현안인 치과진료보조인력수급및 부정의료 행위 척결문제, 자동차보험수가문제, 치과기자재 사후관리 부재 및 불량치과기자재 문제등이다.

이날 논의된 총무위원회 관련안건은 무적치과 의사및 회비미납회원에 대한 제재조치 강구(경기)와 지부장회의 지부순방 개최및 대의원

총회 양일간 개최(제주)등이었으며 치무위원관련 안건은 구강보건행사를 치협에서 실시해 줄 것(서齒)과 치과의료 보조인력 대책마련(부산, 인천, 전남)등이었다.

특히 인천지부는 이자리에서 지난번 회원의 의료사고를 실례로 들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제위관련 안건은 부정의료행위 및 부정기공물 제작 척결책강구(대구, 강원, 경기)등이었으며 학술위관련 안건을 학술대회를 매년 실시할 것(전남, 제주)과 이를 지방에 순회개최토록할것(전남)등이었다.

〈面이 넘쳐 P.602에 이어집니다〉

大韓齒友會 第29回 定期總會 盛了

- 새 會長에 朴忠鎬 次期會長을 會長으로 推戴
- 次期會長 金起鎬서울會長을 選任, 1990年度 豫算 5,200萬원 確定.

대한치우회(회장 具滋益) 제29회 정기총회가 지난 5월 19일 서울 그린파-크 호텔 회의실에서 다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齒協에서 金一京 부회장, 제헌동우회 尹在旭 회장, 아태 池憲澤회장, 치정회 金東順 회장, 학술원 위원 金用瑄박사등 치과의학계 원로 지도자가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具滋益 會長의 개회사, 尹興烈회장(金一京부회장대독), 金東順치정회장, 池憲澤아태회장의 축사와 忠南支部 洪永寬지부장의 4명에 대한 공로패가 각각 수여 되었다.

本會議에 들어가 尹在旭회원이 만장일치의 장에 선임, 의사진행을 주도한 가운데

• 임원개선

현 朴忠鎬차기회장이 회장에 選任되었고 차기회장에는 현 서울시 회장인 金起鎬회원을 선임하고 부회장엔 宋胤儀(서울), 秋玉燁(부산), 洪永寬(忠南), 鄭用官(경남), 白龍鳳(대구·경북), 崔三涉(전라) 그리고 감사엔 金鍾旭, 韓五峰等 諸氏를 各各 選任했다. 또한 朴忠鎬 新임會長의 제안으로 이사구성도 총회에서 선



<제29회 정기총회 장면>



<신임 朴忠鎬회장과 金起鎬차기회장>

임해 줄 것을 요청, 이를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이 이사를 선임하였다. 즉 총무에 吳泰郁, 재무에 宋大變, 학술에 李鍾豊, 후생에 洪思興 회원을 각각 이사에 선임하고 현집행부에서 편성하는 5,200여만원에 이르는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다음 30회 정기총회는 中央에서 主管하되 개최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P.587“텐탈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종합학술대회에 대해 崔富鬪학술부회장은 서齒·공직과 같이 지부별로 합동학술대회를 하거나 인근지부의 학술대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보험위원회와 관련, 논의된 주요내용은 자동차보험수가의 현실화문제(대전)로서 현재 산재보험수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된 자보수가의 현실화를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지부는 치협내 의료보험심사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 자체정화 차원에서 이 기구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李起澤국제이사는 오는 9월 8일 개최되

는 FDI 싱가포르 총회에 많은 회원이 참가하여 97년도 FDI총회 유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집행부에서는 Δ9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조정(안)을 보고하는 한편 Δ협회창립기념일을 10월 2일로 하여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뜻을 밝혔다.

노대통령은 지난 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치과의료인력수급 적정화, 보사부내 구강보건행정 전담부서 부활, 부정의료행위근절대책 강구, 의료보험수가현실화, 의료보험치과 상근심사위원 위촉등 5가지 치과계에 약속한 바있다.